

갑질교수의 민낯 장학금 가로채 생활비로 이용 출장 중 조교에 “개밥 챙겨라”

박경미 의원 교육부 감사자료 공개 8년 동안 장학금 3.4억원 빼돌리고 연구실 학생 인건비 사적으로 평평 갑질 넘은 ‘범죄 행위’ 속속 드러나 “교육부, 실태조사·엄중 처벌 필요”

#.전북대 A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 출국하면서 조교에서 특별한 지시를 했다. 자신이 키우는 개밥을 챙겨주라는 것. 이 교수는 귀국 후 논문지도 학생들이 선물전달 목적으로 마련한 회식 장소에서 조교에게 육식 등 폭언을 하고, 유리잔을 던지기도 했다.
#.서울대 B교수는 교내 한 연구소가 발간하는 영문학술지 편집장직을 수행하면서 편집장사로 일한 석사과정 대학원생 인건비 중 일부금액과 인쇄비 명목의 지원금 등을 편집장 수당으로 조성하도록 해 매달 45만원씩 총 117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지난 3일 오후 제주대학교 이라캠퍼스에서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4학년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이 ‘갑질’ 문제가 제기된 교수 파면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사회 갑질 문화가 최근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을 빼돌려 자신의 수당으로 챙기는가 하면, 연구년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면서 자신의 조교에게 개밥을 주라고 지시한 교수도 있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2017년~2018년 7월말)를 공개했다.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제보된 사안을 교육부가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연구에 참여한 인건비 등을 가로채는 교수들의 범죄 행위가 많았다. 중앙대 C교수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8년여 동안 가로채 사적으로 사용한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 장학금은 무려 3억4200여 만원에 달한다. C 교수는 자신 명의의 생활비 계좌와 정기예금 계좌 등으로 나눠 자신의 돈처럼 사용했다. 한양대 D 교수도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소속 학생 21명의 인건비와 출장비 4억



이미지/픽스타

1500여만원 중 3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 대외활동비 등으로 총 1억4700여만원을 평평 썼다. 전북대 E 교수는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송금된 장학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1000만원을 학과 총무 통장으로 모은 후 서울 소재 모의상실에 송금하기도 했다. 박경미 의원은 “갑사에서 드러난 교수들의 행태는 갑질문화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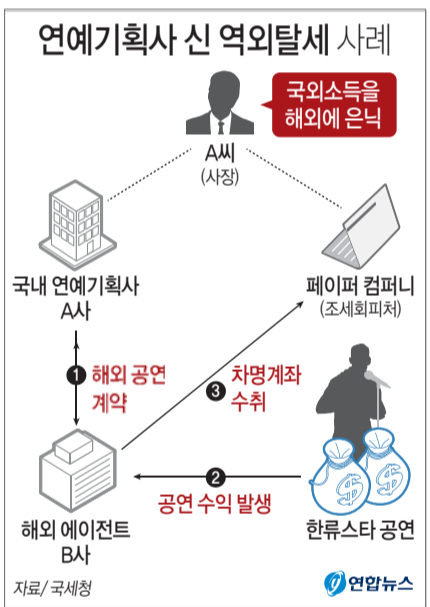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워라밸’ 우수 중소기업 10곳 선정

고용노동부와 잡플래닛은 12일 공동으로 ‘일·생활 균형(워라밸)’이 우수한 중소기업 10곳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워라밸 우수기업은 잡플래닛 홈페이지에 ‘2018 일·생활 균형 실천기업 테마관’을 만들어 기업별 상세정보가 소개될 예정이다. 워라밸 우수기업이란 조직문화, 복지후생, 경영리더십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동시에 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기업을 의미한다.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잡플래닛 기업리뷰가 20개 이상 공개된 중소기업 중 그 회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평가점수 등을 기준으로 2배수를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 중 고용유지율, 노사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10개 기업을 최종 확정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역외탈세 칼 빼든 국세청... 연예기획사 ‘한류 악용’ 70억 탈세

해외 공연금 탈세 적발...90억 추정 과태료 추가 20억에 검찰 고발 조치 1000억원 상속세 안낸 사주 일가도 지난해 역외탈세 추정세액만 1.3조



국내의 한 연예기획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한류 스타의 공연을 개최했다.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수입금만 7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연예기획사의 사주 A씨는 법인을 회피 목적으로 수입금을 홍콩의 한 법인 계좌로 송금해 은닉했다. 이 회사는 A씨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였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 국세청에 탐미를 잡히고 말았다. 국세청은 A씨의 연예기획사에 법인세 등 90억원을 추징하고 A씨가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A씨와 그의 연예기획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역외탈세

합한 뒤 이 법인에 거래대금을 가장한 생활비를 송금하는 ‘뽀뽀한’ 사례도 속출했다. 국내 한 법인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하는 국가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과 해외 시장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대달 용역비 명목으로 일정액의 대금을 보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모두 가짜였다.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쓰였다. 현지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자녀의 유학비용 등에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다른 한 기업의 사주는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의 현지 법인에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왔다. 그리고 유학 중인 자녀를 현지 법인의 직원으로 허위 채용한 뒤 체류비와 급여 형식으로 유학비용을 제공했다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 내국법인의 사주는 선친이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선친의 사망일 전에 빼낸 뒤 ‘홀쫓해진’ 선친의 해외 비자금계좌를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가 탈루한 상속세만 1천억원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 사주로부터 상속세를 모두

추징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40억원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비자금 규모와 탈루세액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내 유력 대기업 중 한 곳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 기업의 사주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리고 홍콩에 설립한 법인이 BVI 법인의 투자를 받는 형식을 취해 BVI가 거둬들이는 투자 수익이 사주로 흘러드는 구조를 교묘히 은폐했다. 사주는 다른 법인 간 거래 과정에 홍콩 법인을 끼워 넣고 원가를 낮춰 공급하는 방식으로 홍콩법인에 이익을 몰아왔다. 국세청은 이 사주가 소유한 법인에 약 50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고 법인과 사주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조사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으로 추징세액만 1조319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76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이 중 58건에 대해 540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상태다. /연합뉴스

추석 앞두고 밥상 물가 안정... 배춧값 평년 수준 회복

농식품부 배추 포기당 3600원대 사과·배 등 과일값 부담은 아직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급등하던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성수기 품목이 평년보다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 부담은 여전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들어 기상 호전과 함께 수급 안정 대책 추진으로 배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배춧값은 지난달 말부터 빠르게 안정돼 이달 상승에는 평년 수준으로 안정됐으며 못값도 지난달 하순 대비 상당폭 하락했다. 포기당 배춧값은 지난달 중순 5400원대에서 이달 상순 3600원대로 낮아졌다. 이는 평년보다 4% 상당 낮은 수준이다. 개당 못값은 지난달 하순 2700원대에서 이달 상순 2200원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78% 상당 높았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까지 매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시중가보다 40~60% 싸게 공급할 계획이다. 사과와 배는 점차 가격이 낮아지고 있

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각각 19%, 24% 비싼 가격대를 유지했다. 지난 10일 기준 홍로 10kg당 사과 가격은 3만4100원대로 지난 5일 3만7000원대보다 소폭 내렸고, 같은 기간 신고 15kg당 배 가격은 5만2500원대에서 3만8500원대로 싸졌다. 농식품부는 사과와 배의 계약 출시 물량을 평시보다 각각 1.8배, 1.5배 늘리는 등 추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평년 수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산물도 저장물량이 충분해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해수부 백령도에 점박이물범 위한 ‘복합 해양생태공간’ 조성

백령도 바다에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사진)과 어업인 이상생하는 복합 해양생태공간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 해역에 ‘점박이물범인공섬터’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백령도 바다가 국내 최대 점박이물범 서식지로서의 지속적 서식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 발족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수소경제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수소산업은 자동차, 발전 등 수소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분야로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다. 앞으로 위원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동력이자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산학연, 공공기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돼 월 1회 정례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수소경제가 에너지 전환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며, 수소산업이 높은 잠재력을 가진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세종=최신용 기자